

## CHAPTER 2. 수시모집 대비 전략 수립의 정석

### 2) 학종 대비, 정말 '답'이 있을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구체적인 선발 방법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학마다 다른 선발 방법은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똑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도 한 번의 평가로 일괄 선발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별도의 단계를 두지 않고 한 번에 일괄 선발하는 대학은 성균관대와 서강대, 한양대, 홍익대가 대표적입니다. 성균관대의 글로벌인재, 성균인재 전형과 서강대의 학생부종합(일반형),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 한양대의 학생부종합전형, 홍익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별도의 면접 없이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처럼 서류평가만으로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경우 면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서류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면접으로 보완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또한 면접에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의 지원이 몰려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일한 평가요소인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죠? 이들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꼼꼼하게 관리·준비해야 합니다.

### 똑같은 면접이라도 유불리가 달라!

서울 주요 15개 대학 가운데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홍익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해 일정 배수의 합격자를 선발한 후 이들에 한해서만 면접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 건국대와 경희대, 동국대, 서울대 등의 대학은 여러 개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데, 일부 전형은 일괄 선발하면서 일부 전형은 단계형으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단계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는 면접의 비중이 높은 대학도 있고 낮은 대학도 있습니다. 이화여

대가 면접 비중이 낮은 편이고, 반대로 서울대 일반전형, 건국대 KU자기추천전형, 숙명여대의 숙명인재전형 등의 면접 비중은 높은 편이지요 서울시립대의 경우 1단계는 서류 평가만으로, 2단계는 면접 결과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학마다 면접 비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 자신의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던 수험생, 혹은 서류의 부족함을 면접에서 지워낼 자신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격에 가까워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 특별히 자신이 없고, 대신 자신이 쌓아 온 고교 생활의 풍부한 기록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전형을 치르고 싶은 학생이라면 서류평가의 비중이 높은 대학에 지원해야겠죠.

면접 비중 외에 1단계 합격자를 얼마나 선발하는가도 합격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1단계 합격자를 5배수나 선발합니다. 단계형 전형에서는 아무리 면접에 자신이 있어도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과정이 무의미합니다. 경쟁자들보다 서류에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면 가급적 1단계 합격자를 많이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2단계에서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는 막막합니다.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전형이기 때문이죠.

정시모집은 '평균 합격선'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내 성적을 대입해보면 지원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과 같이 수치화된 정량적 지표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내 수상 10개 이상, 동아리활동 2개 이상'처럼 각종 교내 활동들에 대한 기준선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도 '기준'은 있습니다. 무턱대고 지원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선 내신부터 볼까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내신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학생들도 이 말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점을 알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신이 5등급, 6등급인 학생이 진로와 관련된 경험이 매우 풍부하고, 고교 활 내내 자신감과 열정이 넘쳤단 이유만으로 서울대에 지원해 합격할 수 있나요? 어렵겠지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모두 우수했지만 정시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비교과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한 일반고 학생이 뒤늦게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해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비교과 활동 이력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합격률을 높이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1차적인 판단기준은 '내신'입니다. 특히 독후활동 기록이 축소되고 소논문이 평가에 미반영 되는 등 풍부한 비교과 활동을 보여줄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 내신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는 내신 성적에 맞춰 지원 대학을 결정하되, 자신의 비교과 활동 이력이 내세울 만하다면 조금 더 상향 지원을 고려해 보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신이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선전이라면, 최종 합격을 결정짓는 것은 그 학생만의 '스토리'입니다. '자신만의 특색 있는 스토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학생부, 자기 소개서, 추천서인가'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찬찬히 살펴보며 전체 학생부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활동을 했더라도 활동의 의미를 입학사정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합격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바로 교내 활동에 답이 있습니다. 각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는 공통적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입니다. 교내 활동 중에서도 특히 적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스토리를 찾기 위한 것이지요.

동아리활동은 가급적 자신의 전공과 연계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신이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면 모의유엔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시사 토론 동아리에 가입해 국제 분야와 관련된 신문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해보는 방식이지요. 자신이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관련 과학 동아리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도 스토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동아리활동이 스토리를 만드는데 적합한 이유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부딪히며 활동을 하다보면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 해나갔는지, 이를 통해 자신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좋은 스토리가 되겠죠. 이런 동아리활동은 독서활동과 연계됐을 때 그 파급력이 높아집니다.

즉,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읽은 학생이 책을 읽고 이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어 시사 토론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룬 책을 읽고 이를 실현해보고 싶어 친구들과 경영경제 동아리에서 남다른 활동을 전개시켜본 경험을 갖는다면 대학으로부터 자기 주도적인 인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학교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 고3, 재수생도 늦지 않았다

이쯤 되면, 입시를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은 자신의 내신 성적과 학생 부를 들여다보며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학생부종합전형조차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고3이라고 해서 꼭 내신과 수능 공부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학년 1학기까지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학교 활동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자신의 진로를 녹여낸 스토리텔링부터 구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교내 대회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참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고 3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느냐 혹은 더 높은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가 최종 결정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어떤 특정한 '합격선'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남들 에 비해 많이 뒤쳐졌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면서 자신의 미흡한 교육활동이나 구체화해야 할 내용을 파악해보면 3학년 1학기까지의 활동으로 '스토리'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재수생 등 N수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N수생들은 학생부의 교과 및 비 교과 이력을 수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재학생보다 시간이 많이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재학생보다 더 많은 공을 들일 수 있습니다. 수능 준비에 지장을 안주는 선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에 만전

을 기하면 역전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재수생이라 면 8월에 지원하려는 학과 또는 계열을 반영해 자기소개서 대교협 공통문항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지원 후보권 대학들의 대학별 문항에 대한 초안을 써보길 바랍니다. 이후 9월 모의평가 후부터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는 최종 확정된 학생부를 참고하고 지원한 대학과 학과에 적합하게 가다듬어 서 완성도를 끌어올려보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의 중요성은 재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교협 공통문항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활동이 추가될 때마다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대다수의 교과 및 비 교과 활동은 고2 때 마무리 되므로 고3 올라가기 전인 2월에는 이를 완성 시켜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보면 학습동기도 강해집니다. 자신의 꿈 과 진로, 목표대학을 그려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나가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 작정 학생부종합전형에 '올인'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 점과 약점을 분석해 스스로에게 맞는 전형을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합니 다. 자신의 학생부를 바탕으로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기록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전형 요소에 따른 강·약점을 분석하여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 술, 면접, 적성, 실기 전형들 중에서 어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특히 학생부위주 전형이라 할지라도 주요대학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3이라면 수능까지 9개월간의 입시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매년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되어 합격의 문턱 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원 가능한 전형의 폭을 좁히지 말 고 열어 둔 상태로, 자신의 모의 수능 성적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지원 가 능 대학을 정하고 전형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길 바랍니다.